



- ※ 지하철 3호선 일원역 1번출구에서 마을버스(강남 01번) 탑승, 암병원/장례식장 하차
- ※ 주차 : 당일 3시간 주차 무료
초과 시 10분당 500원의 주차비가 발생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안내]

- ▶ 사전등록은 법무법인 세승 홈페이지 www.sslaw.kr와 전화접수 가능
(가급적 정확한 등록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전등록기간 : 2014년 10월 31일(금) 부터~2014년 11월 14일(금) 까지
- ※ 참가비 : 사전등록 7만원, 현장등록 10만원
- ※ 법무법인 세승 고문 의료기관 : 참가비 3만원
- ※ 참가비 입금계좌 : 하나은행 572-910011-43504 예금주 법무법인 세승
- ※ 참가비 입금 시 참가자 성명과 소속(병원명)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다 알찬 세미나가 되기 위해 장소관계상 부득이 초청 선생님들의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선생님은 11월 14일까지 사전등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법무법인 세승
유은정 대리 전화 : 02-3477-2131, 538-8573, 팩스 : 02-3477-8842
- ▶ 세미나 일정 및 사전등록 등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세승 홈페이지(www.sslaw.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의료법률 세미나

- 의료기관 개설의 제문제

- ▶ 일시 _ 2014년 11월 30일(일) 13:00~17:00
- ▶ 장소 _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지하 1층) 강당
- ▶ 주최 _ 법무법인 세승
- ▶ 후원 _ 신문 청년의사



■ 모시는 글

어느덧 풍성한 가을이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2014년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세승이 다시금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의료기관 개설의 제 문제’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해간 의료 기관 개설에 관한 갑작스런 개정 의료법의 시행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2012년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범부는 위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을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의료법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 등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속출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진통 끝에 시행된 의료생협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되지 않고 편법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세승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여러 법적 쟁점 사항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여 보자는 의미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여러 선생님들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그 동안 법무법인 세승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11. 30.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 진행순서

개회사 및 인사말

12:30 ~ 12:50 리셉션

12:50 ~ 13:00 개회사 및 인사말

▶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대표)

축사

▶ 이왕준 이사장(신문 청년의사 발행인,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Session 1. 각 의료기관 개설형태의 현황과 문제점

13:00 ~ 14:10 사무장병원 개설

▶ 김준래(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생협 형태 개설

▶ 조현지(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인형태 개설

▶ 정혜승(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14:10 ~ 14:30 질의 및 응답

14:30 ~ 15:00 Coffee Break

Session 2.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른 의료인의 다중운영 금지의 위헌성

사회 : 김철중 기자(조선일보)

15:00 ~ 15:30 주제발표

▶ 김선욱(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대표)

15:30 ~ 16:30 패널토론

▶ 도은식(중소병원협회 이사, 더조은병원 대표원장)

▶ 김주경(보건학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박미라(변호사, 보건복지부 서기관)

16:30 ~ 17:00 질의응답

폐 회